

전남 학생들 “꿈을 꾸다 미래의 나를 만나다”

전남교육청 ‘2023. 진로교육박람회’ 1만 여 방문객 이끌며 ‘성료’ AI·VR 신기술 활용한 체험 ‘인기’...대학·특성화고 홍보부스 북적



미래 자동차를 만드는 개발자부터 K-컬처 공연 기획자·청년 농부 등 수십, 수백 개의 길이 학생들 앞에 펼쳐졌다. 이들은 궁금했던 전문직업의 세계로 망설임 없이 다가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무한한 잠재력이 넘쳐났던 ‘2023 전남남도교육청 진로교육박람회’장의 풍경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한 ‘2023 전남남도교육청 진로교육박람회’가 전남학생과 교육가족, 도민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꿈을 꾸다!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미래 진로·진학교육과 관련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박람회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진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시대적 트렌드를 조망하고,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교류·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사흘 간 열린 박람회 현장에서는 △ 자기이해관 △ 진로탐색관 △ 학과탐색관 △ 진로·직업체험관 △ 진로·진학상담관 등 5개

관, 180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자기이해관” 각 부스에서는 전남 중등 진로전담교사들이 직업·흥미 간이검사지를 작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13개 부스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검사지 작성을 위해 기다리는 학생도 많았다.

상담을 마친 학생들은 곧장 이어지는 학과체험관과 진로·직업체험관으로 이동해 자신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여러 체험을 즐겨볼 수 있었다.

파티세를 꿈꾸는 여수 안산중 김하영 학생(1학년)은 “조금 막연했던 미래 직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거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리과학고 부스체험과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잘 몰랐던 다양한 직업 정보를 체험한 것도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직업 체험 부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바독중·고등학교 부스에는 AI와의 한판 대국을 치르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AI를 활용한 웹툰 학습과 자율주행 코딩 로봇 체험존도 학생들로 북적였다.

각 대학에서 준비한 학과체험관에는 간호학, 전기공학, 토목건설 등 오랜 전통있는 학과부터 미래자동차과학부, 웹툰콘텐츠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전도유망한 특성학과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후배들 유치에 열을 올렸다.

박람회장 안쪽에 마련된 ‘진로도서실’에는 시끌벅적한 체험 부스와는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진로 관련 도서를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외에 구성된 전남 특성화고 학과체험관에는 예비부사관을 양성하는 삼계고등학교의 전자타깃사격 체험, 한국말산업고 승마체험, 순천효산고 IT기술 체험, 여수공업고 4차 산업혁명 체험관 등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전남 특성화고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대거 합격한 소식을 바탕으로 특화된 진로교육·맞춤형 지도 성과 홍보에 나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밖에 행사 기간 구글디렉터, 파일럿, 작가 등 전문직업인들의 꿈강연 콘서트와 진로공연, 진로골든벨, 진로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김수권기자



전남생명과학고, 10일 가래떡 나눔 행사 진행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0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와 함께 ‘가래떡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4-H회(회장 강서현)와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회장 배양민) 및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정성으로 준비한 가래떡 200여개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은 흔히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로 알고 있는데, 이 번 행사를 통하여 ‘가래떡 데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한데,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회는 11월 15일(수) 동아리 시간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과일 바구니 만들기’, ‘쌀알 옮기기’, ‘계란 옮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슬비기자



순천시, 순천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환영’

K-문화콘텐츠 등 주력산업 탄력 기대

순천시는 13일 국립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 선정으로 순천대는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정부의 범부처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남도와 순천시에서도 1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 존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문화관광국을 컨트롤타워로 정하고 관련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의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등 순천대 지원 방안에 골몰했다.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그린스마트팜, 우주항공·첨단분야, 애니메이션 등 특화 분야 중심 전략으로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에 협조할 준비를 갖췄다.

지난 6월 순천대가 글로벌 30 예비 대학으로 지정된 후에도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실제 글로벌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예비지정부터 본격화 실행까지 지·산·학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작지만 단단한 대학의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마련에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힘을 쏟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벌 대학 30 본지정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병운 총장, 국회의원, 시도 의원, 전남남도 외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협력을 지속해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특화 분야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을 느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 녹동초, 에듀테크 온 동아리 및 AI 점핑학교

녹동초등학교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에듀테크 온 동아리 및 AI 점핑학교 성과 나눔 부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동에 참여하며 SW·AI와 수학 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는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이다. 이는 학생들이 그래픽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아정체성을 탐색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